

The Future of Problem: Focusing on the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Sunghwan Jo*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2021 UNESCO report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hilosophy of education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Cont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the new understanding of “Earth” and “human” in the report. The report suggests that the “living planet” is endangered by climate change, and thus a shift to climate change education. Furthermore, it is urged to recognize that humans depend on nonhuman and that nonhuman have agency. Finally, in order to learn such a world view, it is suggested that knowledge should be diversified, and especially learn the way of life in indigenous communities.

[Conclu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2021 UNESCO report reflects planetary awareness such as “Earth in danger.” Second, the reflection on the status of human beings is emphasized that humans are in a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 nonhuman. Third, concepts such as “social contract” or “global citizenship” in the report need to be modified with concepts such as “natural contract” or “planetary citizenship.” Fourth, philosophical clues to the directio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can be found in Korean modern thought.

[Keywords] UNESCO’s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Climate Change, Living Planet, Thomas Berry’ Geology, Korean Relig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6A3A02079082).

* **Corresponding to** Sunghwan Jo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E-mail : hansowon@nate.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기후위기 시대 교육의 미래: 유네스코 보고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중심으로

조성환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조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에 유네스코에서 발행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기후위기 시대 교육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교육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바탕에 깔린 철학적 내용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종교와 인류세적 관점에서 필자의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판’ 교육의 미래보고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기후위기 시대 교육의 미래와 관련해서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지구’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고, 따라서 기후변화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서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에 의존해 있고, 인간 이외의 존재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세계관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식을 다원화해야 하고, 특히 토착적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에는 ‘지구의 위험’과 같은 지구학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 『보고서』에는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와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는 인간의 위상에 대한 성찰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보고서』에 나오는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나 ‘세계시민’(global citizenship)과 같은 개념은 인류세와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자연계약’(natural contract)이나 ‘지구시민’(planetary citizenship)과 같은 개념으로 조정 내지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근대사상에서도 기후변화 시대 교육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적 단초들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기후변화, 살아있는 지구, 토마스 베리의 지구학, 한국종교

I. 서론: 『교육의 미래 보고서』

유엔의 교육 전문 기구인 유네스코에서 2021년에 교육에 관한 한 권의 보고서를 냈다. 제목은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다. 번역하면 “우리의 미래를 함께 다시 상상하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분량은 186쪽이고, 『요약본』도 별도로 있다. 아울러 여러 외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본 제목은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원문과 번역문은 모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¹⁾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의 국제미래교육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utures of Education)가 작성한 것으로, 일명 『교육의 미래 보고서』라고도 불린다.²⁾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인 사흘레-워크 주드(Sahli-Work Zewde)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으로는 김도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회 멤버로 들어가 있다. 이 보고서의 맨 앞에는 「짧은 요약」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고서의 제작 과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약 2년 동안 100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구적(global) 협의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다.” 전 지구인이 참여한 공동창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본문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장(章)으로는 총 9장이다. 본문 앞뒤에는 서론과 에필로그가 달려 있다. 특히 서론에는 현재 인류가 처해있는 위험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언급이 있다.

인류의 생존, 인권,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

각자의 존엄성이 고귀하다는 생각,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약속, 우리의 유일한 집인 지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기존의 경로를 바꾸고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서로와의 관계,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를 다시 균형잡는 것이 시급하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2: 8).

여기에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세 가지 위험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그것에 대한 처방과 교육의 방향이 암시되고 있다. 이 위험들은 이 보고서가 작성되게 된 배경을 시사한다. 그런데 ‘지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위험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지구의 위험’이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구의 위험’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제1부의 제2장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로부터 알

1) 한글 번역본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2022)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s://www.unesco.or.kr/assets/data/report/FbPza0sfWN5ryMZPIDJHypwDKRfUQ4_1649298093_2.pdf

2) 이하에서 이 보고서를 인용할 때에는 『교육의 미래 보고서』 또는 간단히 『보고서』라고 약칭하고, 한글 번역본 쪽수만 밝힌다. 번역은 필요에 따라 영어 원문을 참고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수 있다.

위험에 처한 지구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완화하며 되돌릴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후변화를 위한 교육은 이 세 가지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2: 32).

여기에서는 지구의 위험을 ‘기후변화’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손상된 지구를 위한 교육과정’(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2: 74)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래로 인간의 산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생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대를 학계에서는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명명하고 있다.³⁾ 그리고 인간이 지구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지질학적 행위자’(geological agent)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⁴⁾ 지질학적 행위자 개념은 기존의 생물학적 행위자나 생태학적 행위자와는 차원이 다른 인간관이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행위자 개념으로는 기후변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변화 교육’은 ‘생태학 교육’을 넘어서 ‘인류세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참고로 『보고서』에는 ‘인류세’ 개념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교육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철학이 깔려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유네스코 보고서를 ‘인류세 시대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II. 살아있는 지구: 지구학적 인식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는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행성”(the living planet)이라는 표현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⁵⁾ 이 표현은 작년에 세상을 떠난 대기화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1970년대부터 주장한 ‘가이아 가설’에서 유래한다. 러브록은 지구가 화성이나 금성과 달리 생명체들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환경을 유지해 왔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초생명체”(mega-organism)이자 “살아있는 행성”(a living planet)이라고 보았다(Lovelock, 2018: 14).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3) ‘인류세’ 개념과 그것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Shinohara(2022)를 참고하였다.

4) ‘지질학적 행위자’라는 표현은 Oreskes(2007)에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Chakrabarty(2009) 참조.

5) ‘살아있는 행성(living planet)’이라는 표현은 『보고서』 전체에서 총 15회 나오고 있다.

이름을 따서 ‘가이아(Gaia)’라고 명명하였다. 이후에 ‘가이아’ 개념은 생태신학자와 같은 생태학자들에게 수용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예를 들면 로즈마리 래드퍼드 튜너의 『가이아와 하느님: 지구 치유를 위한 생태 여성 신학』(Ruther, 2006)이나 로이드 기링의 『지구로의 귀환: 신들에서 하느님으로 가이아로』(Geering, 2019)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러브록이 가이아 가설을 낼 당시만 해도 과학계의 반응은 싸늘하였다.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신화적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러브록은 2006년에는 기후변화 문제도 다루면서, 『가이아의 복수: 지구의 기후 위기와 인류의 운명』을 저술하였다. 여기에서 “가이아의 복수”란 인간이 지구에 가한 활동에 대한 지구의 반격이 기후변화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기후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인류세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상에 의하면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나오는 지구 인식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의 가이아 가설에서 유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7장에 나오는 “살아있는 행성과 함께하는 학습”(Learning with the living planet)이라는 표현은 기후변화 교육에는 ‘가이아로서의 지구’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것은 ‘지구학자(geologist)’를 자칭한⁶⁾ 토마스 베리의 개념을 빌리면 ‘지구학 교육’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여기서 지구학이란 지구를 단순히 자연과학적인 탐구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우리에게 지니는 인문학적 의미와 우리가 지구를 대하는 태도 등을 논의하는 학문을 말한다.

토마스 베리의 지구학은 그가 1988년에 쓴 『지구의 꿈』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리는 근대의 문제를 인간과 지구의 문제로 다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즉 근대라는 담론의 중심에 ‘지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베리에게 있어 근대의 문제는 지구의 문제로 치환된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대란 인간의 진보를 위해 지구의 생명 체계가 붕괴된 시대이고, 그로 인해 지구의 지질학적 구조가 변화하였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인간과 지구가 상생하는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인간의 운명과 지구의 운명은 하나이기 때문이다(Berry, 2013: 15-16).

지구와 인류 공동체는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있고, 그 운명이 바로 지금 화해의 국면에 처해 있다(Berry, 2013: 61).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지구와 상호 증진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Berry, 2013: 94)

6) he(=Thomas Berry) came to call himself a “geologist.”(Tucker, Grim, & Angyal, 2019: 120).

여기에서 베리는 근대를 “인간이 지구의 지질학적 구조를 바꾼 시대”로 규정하면서, 그 변화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인간과 지구가 화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기에서 토마스 베리가 말하는 “지구의 운명”은 정확히 말하면 ‘생물권(biosphere)⁷⁾에 사는 생명체들의 미래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의해 초래되는 ‘지구생활자들⁸⁾의 불안한 미래와 운명을 말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베리의 지구학에서는 “인간과 지구의 상호 증진적 관계 구축”을 제안한다.

인간의 운명과 지구의 운명이 하나이고 양자의 관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지구학적 인식은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미래는 지구의 미래에 달려 있고, 이 둘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바꾸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와, 지구와,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2: viii).

여기에서 “지구의 미래”는 토마스 베리가 말한 “지구의 운명”에 상응한다. 그리고 양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진단은 토마스 베리의 “지구와 인류의 운명이 와해 국면에 처해 있다”와 상통한다. 또한 “지구와의 관계 재구축”이라는 제안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토마스 베리가 말한 “인간과 지구의 상호 증진적 관계 구축”과 일치한다.

이처럼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는 제임스 러브록이나 토마스 베리가 선구적으로 제안한 지구학적 시점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지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인류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자”는 제안이다.

III. 상호의존성 : 인간 위상의 재설정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즉 베리와 유네스코에서 제안하는 인간과 지구가 화해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위상에 대한 재성찰에서부터 출발한다. 먼저 베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7) ‘생물권’은 지표면을 중심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상하의 공간을 말한다.

8) ‘지구생활자들’이라는 표현은 Latour(2021)에서 빌려 왔다. 그 의미는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여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인간들 자신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파괴하는 있는 바로 그 생명 형태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Berry, 2013: 251).

여기에서 베리는 인간의 삶의 조건은 ‘인간이 아닌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인간(human)은 비인간(nonhuman)에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노자(老子)식으로 말하면 “유(有)는 무(無=non)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식탁에 올라오는 동식물은 물론이고, 물과 불, 산소와 대기와 같은 지구상의 조건들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 그런데 그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져 있어서 ‘무(無)’가치하다고 치부되기 쉽다. 그런데 그 조건들은 지구의 오랜 진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에 의하면, 지구에 사는 존재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협업해서 만들어 낸 결과이다. 따라서 지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로 귀중한 지구의 유산이다. 그런데 근대인들은 그것을 단지 인간의 진보를 위한 ‘자원’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 베리의 비판이다. 그 자원이 고갈되면 인간의 삶의 조건도 무너진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인류세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생명체들의 운명까지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시대를 말한다. ‘6차 대멸종’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지금과 같이 인간이 지구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구생명체들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인간과 지구의 운명이 통합되어 있다”는 베리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인간은 지구라는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지구 안의 생명체들은 인간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인식이 보인다.

서구의 교육 전통에도 …… 자연 세계와 환경이 아니었다면 배울 수 없을 것들을 학생들이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기회가 종종 마련되었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만남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호혜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또한 인간이 아닌 존재(non-human beings)를 그 자체로 행위성(agency)을 지닌 스승이라고 간주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교육과 장소 기반 교육의 형태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를 다시 균형잡기 위해서 우리는 상호의존성을 다시 배우고 인간의 위치와 행위능력을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2: 126).

여기에서도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와 함께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 관계”,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nonhuman)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간이 아닌 존재를 그 자체로 행위성을 지닌 스승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은 주목할만하다. 왜냐하면 ‘행위성’(agency) 개념은 최근에 서양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유물론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령 정치철학자 제인 베넷은 2010년에 쓴 『생동하는 물질』에서, 인간 이외의 존재도 인간과 같이 ‘행위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사물(thing)이 아니라 ‘사물-힘(thing-power)’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코로나 팬데믹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경봉쇄나 여행 금지와 같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구 어딘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환경 오염과 생태 변화를 야기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반대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지렁이는 그의 활동성으로 ‘분변토’를 형성하여 비옥한 토양을 가능하게 하였고, 나아가서 사물의 부패를 막음으로써 고고학이라는 인간의 행위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종래에 인간의 영역과 사물의 영역을 구분해서 이해했던 사고방식을 근저에서 뒤흔들고 있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제인 베넷은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도 ‘행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물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 이외의 존재를 단순한 생태학적 차원이 아니라 ‘생태정치학’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서 사물의 힘들에 대해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Bennet, 2010: 9-12, 238-244).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나오는 “인간이 아닌 존재를 그 자체로 행위성을 지닌 스승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은 이러한 철학적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참고로 토마스 베리는 ‘행위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체’(subject)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¹⁰⁾ 근대인들은 인간 이외의 존재를 수동적 객체로 대했는데 생태적 시대에는 인간과 친교를 맺는 ‘주체’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이 서로 친교를 맺는 상태를 ‘지구공동체’(Earth Community)라고 명명하였다. 그래서 베리의 지구학은 지구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인문학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¹¹⁾

결국 신유물론이나 지구학 그리고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위상에 대한 성찰이다. 지구에는 인간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고, 그 더 큰 세계 덕분에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자각이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를 다시 균형잡기 위해 우리는 상호의존성을 다시 배우고 인간의 위치와 행위성(agency)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함께 고려하는 우리의 미래, 2022: 126).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와 행성 지구의 상황은 세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Ibid.: 165).

생태 위기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교육 과정을 필요로 한다. 효

9) 한글 번역서 『생동하는 물질』에서는 ‘thing-power’를 ‘사물-권력’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물-힘’이라고 번역하였다.

10) “자연 세계는 객체일 뿐만 아니라 주체이다”(Berry, 2013: 133).

11) ‘지구공동체’ 개념은 Berry(2013)의 제2장에 나오고 있다.

과적이고 관련성 있는 기후변화 교육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Ibid.: 87).

여기에는 기후변화 시대의 교육의 방향이 명시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는 교육이다. 그 위상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에 의존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인간 이외의 존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행위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성’은 인류세적 개념으로 말하면 ‘인간이 기후를 변화시키는 지질학적 행위자’가 된 사실을 가리킨다. 그래서 인류세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가 중요해진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지구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물의 행위성에 대한 자각도 요청된다. 사물이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지구 환경과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도 수반되어야 한다.

IV. 지식의 다원화 : 토착적 세계관의 수용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위상이 근대화되기 이전의 토착적 세계관에 잘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세계관에 다시 주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근대화로 인해 본래 지니고 있던 인간의 위상에 대한 인식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교육은) 식민 지배와 산업화로 인해 수많은 토착적 공동체들이(indigenous communities) 인간 세계 및 인간 너머의 세계(more-than-human world)와¹²⁾ 이루던 조화로운 관계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교육이다. ……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며 손상을 입은 지구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재학습해야(re-learning) 하고, 대규모 생물다양성 손실과 전체 생태계의 파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를 초래한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 탈학습해야(unlearning) 한다. ……

토착 지식 체계는 학생에게 자신이 자연공동체의 일부임을 자각하게 해주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가치, 실천 방식, 영적 의식으로부터의 자각도 이끌어낼 수 있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2: 75).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근대화의 부정적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화 이전의 긍정적 유산이며, 마지막은 토착적 세계관의 중요성이다. 여기에서 ‘근대화’란

12) 여기에서 ‘인간 너머의 세계’(more-than-human world)는 인간을 제외한 ‘비인간 세계’(nonhuman world)의 다른 말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식민 지배와 산업화 과정을 말한다. 근대화는 인간의 오만을 낳았고, 인간과 지구의 상호연결성을 망각하게 했으며, 그로 인해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와의 조화가 깨졌다는 진단이다. 그래서 근대화 이전의 긍정적 유산은 재학습해야(relearn) 하고, 근대화로 인한 부정적 유산은 탈학습해야(unlearn) 한다고 말한다. 이 탈학습을 보고서의 다른 곳에서는 “지식의 탈식민지화(decolonizing knowledge)”라고도 말하고 있다.

복잡한 지식 생태계의 강화

현재 너머의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구와 문화와 전통이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연구와 혁신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 지식의 탈식민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의 지식이 현재와 미래의 긴급 상황에도 타당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토착민의 인식론을 그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실행 가능한 접근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정 형태의 지식은 개발에서부터 경제, 교육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다른 지식보다 더 대우를 받는다. 흔히 북반구의 지식은 개발도상국의 맥락으로 이전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생성된 지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는 가정 하에 이전된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2: 140).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이 명시되고 있다. 하나는 지식이 식민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탈식민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식이 식민지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식의 출처가 단일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탈식민지화해야 한다는 것은 지식의 출처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출처가 단일화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식이 위계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특정 형태의 지식이 더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정 형태의 지식은 ‘북반구의 지식’, 즉 ‘선진국의 지식’을 말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지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보고서의 관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교육을 포함한 여러 서구적 사고 전통은 이론과 실천, 개인과 집단, 예술과 과학, 인간과 자연, 진보와 보수, 삶과 감정, 지성과 육체, 영혼과 물질, 현대와 전통 등으로 구분된 이분법적 사고를 관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많은 비서구적 관점들이 기여한 바는 이러한 양극성을 가진 전제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이해의 빛을 비추주었다는 데 있다. 그 새로운 이해는 상호 관계와 거기서 생성되는 긴장을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세계의 결합된 부분들로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위기가 닥쳤을 때 지역사회들은 그들의 방대한 경험과 지식과 창조성의 저장소를 교육이 비상 상황을 완화하고 적응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중 몇 가지만 거론하면, 지속가능한 농사짓기, 사회적 호혜주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 등 오래 축적되어 온 선조들의 지식은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지식의 원천이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공교육에서 잊혀졌고, 인정받지 못했으며, 완전히 삭제됐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2: 141).

여기에서는 북반구 선진국을 대표하는 서양의 이분법적 사유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고로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는 비서구적 세계관, 즉 토착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토착적 세계관은 서구적 세계관에 밀려 공교육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다시 소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양=이분법’이라는 도식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양 현대 철학에서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유 방식을 넘어서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카르트 이래의 이원론적 사유가 여전히 서구 전통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아울러 그러한 형태의 서구적 지식이 여전히 공교육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보고서에서 말하는 토착적 세계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말이 참고가 된다.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를 다시 균형잡기 위해 우리는 상호의존성을 다시 배우고 인간의 위치와 행위능력을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많은 문화들이 인류가 지구의 나머지 부분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케추아 언어의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개념은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생태적으로 균형잡힌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반투족(Nguni Bantu)의 ‘우분투(ubuntu)’ 철학의 관계성의 원칙(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은, 불교 윤리의 카루나(Karuna, 자비)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일러준다.

이것들은 인류가 활용해야 할 풍부한 문화 자원의 단지 두 가지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 생명의 총체성(wholeness of life)에 뿌리내린 교육은 분명 우리가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한 열쇠 중의 하나일 것이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2: 126-127).

여기에는 비서구 전통에서 실천되고 있는 상호의존적 세계관으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다. 하나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원주민의 ‘수막 카우사이’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우분투’ 철학이다. ‘수막 카우사이’는 ‘좋은 삶’이라는 뜻으로, 스페인어로는 ‘부엔 비브르(Buen Vivir)’라고도 알려져 있다. 조영현과 김달관은 이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막 카우사이는 토착 원주민의 세계관과 삶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사유라 할 수 있다. 그것의 핵심은 공동체 패러다임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관계의 조화와 균형, 공생을 강조한 삶의 방식이자 패러다임이다. 그 중심에 ‘어머니이신 자연’ 파차마마에 대한 경외와 존중, 사랑이 있다(JO & Kim, 2012a: 130).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 공생을 추구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삶

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 깔려 있다. 그런데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 개념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것도 헌법 정신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서는 조영현과 김달관의 다음의 말이 참고가 된다.

에콰도르의 2007-2008년 제헌 과정에서 수막 카우사이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했다. …… 수막 카우사이는 신헌법을 관통하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헌법 전문에서 “다양성, 자연과 조화에 기초한 공생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의 목표로서 위상도 포함하고 있다. …… 수막 카우사이는 오랫동안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은폐되었던 원주민 세계관에서 유래하고, 열등하고 야만적이며 추상적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타자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신헌법에서 이처럼 주변화되고 잊어졌던 이들의 언어와 사상이 수용되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신헌법의 수막 카우사이는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복지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보로서 발전 이념에 반대하며, 권력의 식민성에 저항하는 것이다(JO & Kim, 2012b: 25-27).

이에 의하면 수막 카우사이는 에콰도르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채택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잊혀진 토착 사상이 현대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 이유는 서구 근대의 개인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회의와 반발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전통 사상이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일본의 아프리카 영문학자 기타지마 기신은 ‘토착적 근대’(indigenous modernity)라고 명명하였다(Kitajima, 2017). 그러나 이때의 전통 사상의 부활은 전통 그대로의 것은 아니다.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워진 전통이다. 그래서 ‘토착적 근대’에는 ‘근대화된 전통’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보고서에서 들고 있는 또 다른 예인 우분투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타지마 기신에 의하면, 우분투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고 하는 상호의존적 인간관으로,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근대적 인간관과는 결이 다르다. 자신의 존재 근거로 ‘자신의 이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내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 덕분이고, 내가 우정과 신뢰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친구 덕분이다. 우리는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어른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 이처럼 타인의 존재 없이는 하나의 완성된 인간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이 우분투적 인간관이다(Tutu, 2011: 21-24). 그런데 이 우분투 개념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정책을 철폐하고 흑인과 백인이 화해를 이루는데 철학적 바탕이 되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인간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이다. 그래서 기타지마 기신은 아프리카의 우분투를 토착적 근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Kitajima, 2017).

한편 이와 같은 토착적 세계관의 중요성은 토마스 베리의 지구학에서도 보이고 있다. 토마스 베리는 지구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례로 아메리카 인디언을 든다. 『지구의 꿈』의 제14장

「아메리카 인디언의 역사적 역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디언들의) 감사 의식은 인간이 지금까지 해온 의식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의식이다. …… 먼저 우리를 길러준 어머니 지구에게, 그다음에는 강과 시냇물에게, 초록색 식물에게, 옥수수와 콩과 호박에게, 덩불과 나무에게, 바람에게, 달과 별 그리고 해에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위대한 신령에게 고마움을 표한다(Berry, 2013: 40)

원주민 부족들이 지닌 다섯 번째 힘의 원천은 인간-지구 관계에서 지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다. …… 아주 인상적인 것은 인디언과 북미 대륙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주체적 친교이다. 인디언 부족들이 본능적으로 맺는 자연 세계와의 친교는, 모든 과학 기술을 지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험할 때조차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다(Berry, 2013: 284)

여기에서 베리는 인디언 부족들이 지구와 맺는 관계를 ‘감사’와 ‘친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들에게 지구와 만물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자원이나 도구가 아니라 감사와 고마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베리는 “친교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베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전통을 현대인들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오래전에 지구, 그리고 지구의 살아 있는 다른 생명 형태들과 상호 증진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구와 친교를 맺는 기술을 인디언에게 다시 배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역방향의 의존성이 확립된다. 미래에도 생존하려면, 인디언이 우리에게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디언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의존해야 할 것 같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인디언들이 이 대륙을 기계적으로 착취하는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이 대륙과 관계를 맺는 그들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Berry, 2013: 285).

이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지구와 친교를 맺는 방법을 상실했고, 그것이 지금의 지구적 위기를 낳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인디언과 같은 토착민들에게 지구와 친교를 맺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베리는 ‘역방향의 의존성’이라고 표현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표현을 빌리면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재학습(relearn)”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베리는 일찍부터 토착적 세계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구학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그런 의미에서 베리가 토착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입장도 ‘토착적 근대’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한국종교와 기후변화 교육

지금까지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나타난 철학적 배경을 인류세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 토마스 베리의 지구학, 현대의 신유물론과 같은 철학들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지식의 탈식민지화나 토착적 세계관도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종교의 관점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가령 『보고서』에서 소개한 수막 카우사이나 우분투에 상응하는 한국사상의 개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하에서는 그 단서를 조선 후기 실학과 동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보고서에 나왔던 “인간이 아닌 존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알려진 담헌 홍대용의 “성인사만물(聖人師萬物)” 또는 “자법어물(資法於物)” 개념과 상통한다. “성인사만물”은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뜻이고, “자법어물”은 “사물을 바탕으로 삼고 본받는다” 또는 “사물로부터 규범을 취한다”는 뜻이다.¹³⁾ 홍대용은 인간의 윤리나 기술 또는 지혜 등은 자연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사상을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인간과 비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균등하다”고 하는 인물균(人物均)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지구에서의 인간의 위상을 지구라는 생명체에 붙어있는 벼룩이나 이에 비유하였다.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만물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한편 홍대용의 물론(物論)은 이후에 동학으로 가면 더욱 강화된다. 19세기 말의 동학지도자인 해월 최시형은 인간 이외의 존재도 하늘님처럼 모시라는 경물(敬物) 사상을 설파했다. “새소리도 하늘님의 소리이다”는 그의 설법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시형에게로 오면 만물은 스승을 넘어서 하늘님과 같은 신성한 존재로 격상된다. 이처럼 최시형이 만물의 위상을 격상시킨 것은, 마치 지렁이가 지구시스템의 유지와 인간의 문화 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Bennet, 2010: 94-98), 지구라는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최시형의 “이천식천(以天食天)” 설법이다. “이천식천”은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뜻인데, 지구생태계의 순환 과정을 먹음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가령 지렁이는 먹이를 먹을 때 흙과 함께 먹는데, 소화를 시킨 뒤에는 흙을 변으로 배출한다. 이것을 ‘분변토’라고 하는데, 이 분변토를 체로 쳐서 거르면 천연미생물 비료가 된다. 이 비료는 식물을 기를 때에 양분으로 제공된다. 이처럼 지렁이가 먹이를 먹는 행위는 뜻밖에도 다른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바탕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지렁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니 제인 베넷의 표현을 빌리면 존중(respect)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생각을 최시형은 “경물(敬物)” 또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현대 산업 사회에서 생명 운동을 전개한 것이 ‘한살림’ 협동

13) 홍대용의 “성인사만물”과 “자법어물” 사상에 대해서는 Heo et al.(2023: 71-72)를 참고하였다.

조합이다. ‘한살림’은 우리말의 ‘한’과 ‘살림’을 조합해서 만든 신조어로, “모두 다 살린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산스크리트어 ‘사티아’(=진리)와 ‘그라하’(=붙잡음)를 조합해서 만든 ‘사티아 그라하’ 개념을 연상시킨다. 사티아그라하는 간디가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인도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구호였다. 기타지마 기신에 의하면, 그 사상적 배경은 힌두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 유래하고 있다. 그래서 기타지마는 이 운동을 토착적 근대의 사례로 꼽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살림’도 최시형의 경물이나 이천식천과 같은 동학사상을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바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에콰도르의 ‘수막 카우사이’나 아프리카의 ‘우분투’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동학이 되었던 한살림이 되었던 아직 기후변화와 인류세를 예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의 사상적 바탕에는 지구학적 인식은 있지만 인류세적 시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지질학적 행위자로서의 인간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동학과 동시대에 탄생한 최한기의 『기학(氣學)』에는 그러한 요소가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과 만물 그리고 도구를 모두 ‘기의 변화’[氣化]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은 ‘기후변화’를 ‘기화’의 일종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 야기된 현상인데, 최한기는 도구도 기를 변화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학』에 나오는 ‘물기(物氣)’나 ‘물기화’(物氣化)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물기’나 ‘물기화’는 마치 제인 베넷이 그냥 thing이 아니라 ‘thing-power’라고 했듯이, 사물을 기(=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사물 중에는 동식물은 물론이고 인간이 만든 도구도 포함된다. 『기학』에 나오는 ‘기용운화(器用運化)’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기용운화란 “도구[器]를 사용하는[用] 것에 따른 기의 운행[運]과 변화[化]”라는 뜻이다. 즉 최한기는 인간이 만든 도구도 기를 변화시킨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서 인간이 도구를 만드는 행위도 ‘기의 변화’의 일종으로 본다. 물기(物氣)나 물기화(物氣化)와 대비되는 인기(人氣)나 인기화(人氣化) 개념이 그것이다. 그래서 최한기의 기학 체계에서는 기후변화가 철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인간의 기(氣)의 활동이 도구를 만들었고, 그 도구의 사용이 대기를 변화시켜서 기후변화가 야기됐으며, 그로 인해 인간의 활동이 제약받게 된 것이다.¹⁴⁾

반면에 서양어의 climate은 철학적 개념도 존재론적 범주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과 무관한 자연 현상의 일부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인류세 철학이 등장한 최근 10여 년에야 인간과 자연의 구분이 무너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기학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한국사상사에서, 또는 동아시아지성사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근대’라는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실학사상의 일환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기학이 ‘인류세’의 틀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유네스코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지식의 다원화’는 이러한 작업이 연구와

14) 이상 최한기 기학의 인류세적 함의에 대해서는 Jo(2023)을 참고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학적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VI. 결론: 향후의 과제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보고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아쉬움을 한두 가지 피력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표현이다. 보고서의 부제에도 들어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표현은 보고서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다가온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도 교육을 사회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교육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사회계약’이라는 종래의 인간중심적 개념보다는 미셸 세르가 제안한 ‘자연계약’(natural contract) 같은 개념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셸 세르는 1990년에 프랑스어로 쓴 『자연계약』이라는 책에서, “앞으로의 인류의 걱정은 날씨가 향하게 될 것이다”고 예언하면서, 기존의 사회계약에 덧붙여서 공생과 상호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자연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erres, 1995: 27-50). 즉 자연의 원리를 인간 사회의 영역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류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를 또 하나 들면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개념이다. 영문 보고서에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particular must become keenly attuned to this consciousness of the planetary.”라고 나오고 있다(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2021: 111). 한글 번역문은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지구적 의식과 긴밀하게 조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2023: 126). 여기에서 ‘global’이 ‘the planetary’(행성적인 것) 개념과 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행성적 의식’을 기르는 교육이라면 “global citizenship education”보다는 “planetary citizenship educ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페시 차크라바르티에 의하면, globe는 planet과 달리 인간중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globalization이 지금의 기후위기의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Heo et al., 2023: 254-259). 따라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고 하면, 차크라바르티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위기를 야기시키는 시민 교육”으로 독해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planetary citizenship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실제로 정치신학자 캐서린 켈러는 “planetary citizen”과 유사한 “planetary public”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Jo, 2023: 295). 다만 한글

번역에서는 globe와 Earth가 모두 ‘지구’로 번역되기 때문에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때로는 planet까지 ‘지구’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세 개념에 담긴 뉘앙스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참고로 교육학자 이우진은 ‘세계시민교육’ 개념에 담긴 인간중심성을 비판하면서 ‘지구시민교육’ 개념을 제안하였다(Lee, 2021).

이상의 한계와 과제들을 감안하고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다면, 한국판 『교육의 미래 보고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References

- Kitajima, G. (2017). Indigenous Modernity and Peace - Focusing on the Transition from Euro-centric Modernity to Peaceful Coexistence Modernity and Its Movements. *The Journal of Korean Religions*, 41. 51-79.
- Lee, W. J. (2021). Changing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the Era of Planetary Risk.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89. 463-499.
- Latour, B. *Où Suis-Je?: Leçons du Confinement à L'usage des Terrestres*. 김예령 옮김 (2021). 나는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 사태와 격리가 지구생활자들에게 주는 교훈. 서울: 이음.
- Tutu, D. (2011). *God Is Not a Christian and Other Provocations*. New York: HarperOne.
- Chakrabarty, D. (2009). The Climate of History: Four Thesis. *Critical Inquiry*, 35(2), 197-222.
- Chakrabarty, D. (2021).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net, J.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ennet, J. *Vibrant Matter*. 문성재 옮김 (2020).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서울: 현실문화.
- Lovelock, J. *Gaia: A New Look at on Earth*. 홍옥희 옮김 (2003). 가이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서울: 갈라파고스.
- Jo, S. H. (2023). The Philosophical Turn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 The Dialogue between Anthropocene Philosophy and Qi-Philosophy. *PHILOSOPHY·THOUGHT·CULTURE*, 41, 171-193.
- Jo, S. H. (2023). Political Theology for the Earth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Literature, history & philosophy*, 73, 290-302.
- Jo, Y. H. & Kim, D. K. (2012a). La Recuperación del Pensamiento y Cosmovisión Indígena en Ecuador: Un Estudio Teórico Sobre el Sumak Kawsay. *KJLACS*, 31(2), 127-160.

- Jo, Y. H. & Kim, D. K. (2012b). El Sumak Kawsay de Ecuador como la Reforma Descolonial del Estado: Enfocado al Aspecto Práctico. *JHIS*, 14(1), 21-55.
- Geering, L. *Coming Back to Earth: From Gods, to God, to Gaia*. 박만 옮김 (2019). 가이아와 기독교의 녹색화: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다시 가이아로.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 Ruther, R. R. *Gaia & God: Ecofeminist Theology of Earth Healing*. 전현식 옮김 (2006). 가이아와 하느님: 지구 치유를 위한 생태 여성 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Tucker, M. E. & Grim, J. & Angyal, A. (2019). *Thomas Berry: A Biograph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erres, M. *Le Contrat Naturel*. Elizabeth MacArthur and William Paulson trans. (1995). *The Natural Contract*,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Oreskes, N. (2007). The Scientific Consensus on Climate Change: How Do We Know We're Not Wrong? Joseph F. C. Dimento. & Pamela Doughman. (ed.). *Climate Change: What It Means for Us,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Shinohara M. *Philosophy in the Anthropocene*. 조성환 외 옮김 (2022). 인류세의 철학: 사변적 실재론 이후의 '인간의 조건', 서울: 모시는사람들.
- Berry, T. *The Dream of The Earth*. 맹영선 옮김 (2013). 지구의 꿈,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 UNESCO. (200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이현경 옮김 (2022).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조성환 (2023). K-사상사: 기후변화 시대 철학의 전환. 서울: 다른백년. (Translated in English)
- Jo, S. H. (2023). *K-Philosophy: The Philosophical Turn in the Era of Climate*. Seoul. Tarun Baeknyeon.
- 허남진, 조성환, 이원진, 이우진 (2023). 어떤 지구를 상상할 것인가. 서울: 모시는사람들. (Translated in English) Heo, N. J., Jo, S. H., Lee, W. J., & Lee, W. J. (2023). *What Kind of Earth Should We Imagine?* Seoul: Mosinunsaramdul.